

# 경제 활동을 하는 남녀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요구 - 조절 - 지지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lderly Workers' Psychological Well-being

- An Application of the Demand - Control - Support Model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조 윤 주\*

교 수 이 숙 현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Lecturer : Cho, Yoon-Joo

Professor : Lee, Sook-Hyun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elderly workers'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der and explored the variables which account fo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Paid laborers aged 60 or older (eight-five men and nine-eight females) were interview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workers. The control level of activity and family support were the variables that explain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 paid workers. The higher the control level of activity was, and the more support given from family,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ores they showed. Educational level, demand level of activity, and material reward determin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workers. The higher their educational level was, the lower the demand level of activity was, and the fewer rewards they received from paid work, the highe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

▲주요어(Key Words) : 경제 활동 노인(the elderly workers),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

## I. 서 론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수명은 각각 74.4세, 81.8세로 세계에서 30위와 18위를 기록하였다(UN, 2007). 반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노동력의 규모가 감소될 뿐 아니라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1세로(통계청, 2006), 긴 여생에 비해 이른 나이의 퇴직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노인의 43.3%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에서처럼(통계청, 2005), 재취업을 하거나 취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일을 통한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라는 구호 아래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 주 저 자 : 조윤주 (E-mail : bju0501@naver.com)

일찍이 고령화에 대비해 온 서구에서는 노화에도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나 '생산적인 노화(productive aging)'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Baltes & Baltes, 1990). 그렇다면 바람직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충족시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전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면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으로 확대되어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일례로 활동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역할 있고, 이에 대해 노인에게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노인은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존재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 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65세 이후에도 취업중이거나, 재취업을 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onner et al., 1985; Riddick, 1985).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재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윤희열, 1997) 또는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신동면·양기근, 2003)가 대부분으로 최근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노인의 참여 욕구가 증가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 인력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차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노인 취업 박람회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으나, 노인이 취업 가능한 직종들의 수요와 공급간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이해와 욕구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의 취업율은 저조하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서양열(2004)의 연구외에 드물며, 내용 역시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의 고령자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활동의 특징 자체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거나 모델에 기초하여 접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적 토대 위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활동의 주체가 성장보다는 쇠퇴가 많은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은 작업하는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Karasek (1979)의 '요구-조절 모델(Demand-Control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므로 고령자와 특히 관련이 많은 모델이라고 한다(Barnes-Farrell, 2005).

Karasek(1979)은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하는 역할이 갈등스럽거나, 모호하거나, 과도할 경우,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활동의 '요구(demand)'라 정의하였다. 반면 일에 대한 '조절(control)' 정도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중재 변인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원의 유해한 결과들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 또한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자원으로 빈번하게 고려되어 왔으며, 고령자의 스트레스 과정에서 동일한 역할을 담당한다. Johnson과 Hall(1988)은 기존의 모델에 '지지(support)'를 포함하여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로 확장시켰다. 이들은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와 활동에 대한 주위의 지지 정도가 낮을 때, 안녕감이 최저일 것으로 보고 이를 '고립 긴장 가설'이라 명명하였다.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실제로도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에 비해 지지 정도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Heaney et al., 1995; Roxburgh, 1996; Schaubroeck & Fink, 1998). 최근에는 요구도는 낮지만 조절도는 높은 '저 긴장 활동'이 수행자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거나(Lerner et al., 1994), 개인이 요구도와 조절도가 모두 높은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자기 계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Dollard et al., 2000).

그동안 '요구-조절-지지 모델'은 다양한 유임금 노동에 적용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운주(2007)의 연구외에 드물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생산적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경제 활동 종사자만의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간혹 의학적 측면에서 신체적 건강상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 있을 뿐이다. 또한 성인 발달의 연구 대상이나 이론적 개념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Gilligan, 1982). 성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부족하였다.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 노동에 관한 연구들이라면 일 자체의 특징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직업인, 아내, 어머니로서 다중 역할의 영향에 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 활동은 곧 남성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 노인 역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의 자활 능력을 중시하는 현실을 볼 때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실태 조사 위주였던 제한점을 보완하여 노인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요구-조정-지지 모델'을 적용, 일과 관련된 특징들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참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의 환경을 계획하여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남녀 노인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수 있고, 사회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어 새로운 노인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노인이 참여하는 활동의 요구 정도, 조정 정도, 지지 정도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3-1]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3-2]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선행 연구 고찰

### 1. 노년기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

노인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양질의 삶을 사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데, 적용의 개념은 주로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용어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사기'는 노년기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행복감'은 단기간의 정서적 안녕감을 다룬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장기간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하나 인지적인 측면만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들은 적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George & Clipp, 1991).

최근에는 '안녕감(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도 추세인데, Ryff(1989)는 안녕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서적인 안녕감에만 초점을 두어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양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의 구성 영역으로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성, 연령, 건강, 종교 유무,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배우자 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기본 변인으로 포함한다. 선행 연구 결과들은 대개 남성이면서(Pinquant & Sorensen, 2001), 젊고(Campbell et al., 1976), 건강하며(김재돈·남철현, 1997), 종교가 있고(Krause, 2003),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박기남, 2004; 이선미·김경신, 2002), 유배우자의 경우 적용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Chipperfield & Havens, 2001).

그러나 점차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인가에 관한 연구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도 인성이나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적 관점이 제안되었으며(Brief et al., 1993),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탐색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Maslow(1966)가 인간의 욕구 단계에도 위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위주로 연구되었던 것이 점차 상위 욕구 충족과 관련된 변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당한 객관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주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참여와 활동이 감소되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 확인하고 싶은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와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 2.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들의 취업 상태와 삶의 질간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Herzog와 House(1991)는 일에 대한 선택권이 많을수록, 일에 대한 일정 조정이 자유로울수록, 신체적·심리적 안녕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일의 유형 뿐 아니라 활동 수준도 노년기 건강과 안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노동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Conner et al., 1985). Parnes와 Sommers(1994)는 퇴직 연령이 지난 노인 중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양호한 건강 상태와 일에 대한 헌신 정도, 퇴직을 원하지 않는 것 외에 교육 수준과도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인데, Riddick(1985) 또한 65세 이후에도 취업중인 여성이 은퇴한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다. 윤희열(1996)은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이직 횟수가 적을수록,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노인의 적성에 맞을수록,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수록, 자녀들이 노인의 취업에 대해 찬성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서양열(2004)은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의 참여 만족을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세 배 이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렀다. 그러나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불만족하였는데 이들의 희망 소득은 31만 9천원 정도였으나, 실제 소득은 11만 9천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참여 이유는 생계 유지(35.2%), 건강 유지(19.2%), 교제 목적(16.0%)의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경제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보수 수준, 본인의 선택 여부, 적성과 권한 정도, 가족의 지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조건외에 활동 자체의 특징과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요구-조절-지지 모델

이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활동의 특징, 즉, 개인에게 부여된 활동의 '요구(demand)' 정도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이 활동을 '조절(control)'할 수 있는 재량 정도에 따라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Karasek, 1979). 활동의 요구 정도는 활동시 경험하는 시간 압력, 활동량의 과중, 역할 갈등 등으로 정의되며, 활동의 조절 정도는 결정권의 허용 정도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를 조합해 보면 네 가지 경우가 도출된다.

첫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는 낮은 경우로 '고긴장(high strain) 활동'이며, 두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는 낮는데 조절 정도는 높은 '저긴장(low strain) 활동'이다. 세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모두 높은 '능동적인(active) 활동'이며, 네 번째는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가 모두 낮은 '수동적인(passive) 활동'이다. 네 가지 활동의 범주 중 '능동적인 활동'은 참여자가 자신을 보호할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동적인 활동'은 수행자의 동기나 의지가 퇴색되어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이 감소, 소멸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연구자들은 '고긴장 활동'이나 '저긴장 활동'이 참여자의 안녕감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긴장 활동'의 경우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Karasek 등(1982)은 작업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에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조사해 보았는데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잠재적인 에너지 활용 능력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개인은 자신의 능력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Johnson과 Hall(1988)은 '요구-조절 모델'에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여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로 확장하였다. 즉,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아 긴장 상태에 있는 개인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때 활동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예방,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대체로 활동의 요구 정도는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는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ney et al., 1995; Karasek et al., 1982; Lerner et al., 1994; Roxburgh, 1996; Schaubroeck & Fink, 1998).

이와 같이 '요구-조절-지지 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고립 긴장 가설'을 위주로 하여 검증되었으나, 최근에는 '능동적인 활동'에 대한 '학습 가설'에도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안녕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동의 요구 정도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를 기술 재량과 결정 권한에 관한 문항들로 측정하여 활동의 요구 정도와 동질적인 문항들이 중복되고 타당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기술 재량과 결정 권한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추세이고, 조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척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다(Jones & Fletcher, 2003). 그리고 지지 정도를 측정할 때에 주로 작업 환경에서의 지지가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인 개념이므로 가족, 관련 전문가,

지역 사회로부터의 지지 등 좀 더 포괄적인 지지원으로 확대하는 방법(Lerner et al., 1994)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점을 참고하여 노인이 하는 경제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지지 제공원으로서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은 일하는 남녀 노인 183명(남성 85명, 여성 98명)이었다.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

인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 직업인의 퇴직 연령이 54.1세(통계청, 2006)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였다. 전업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모두 포함하였고, 활동에 종사한지 3개월 이상되며, 최소 주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연구 도구들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노인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하였는데, 면접 소요 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내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관련 이익 단체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나 평가회가 실시된 노인복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3)

변 인	남(n=85) 빈도(%)	여(n=98) 빈도(%)	전체(N=183) 빈도(%)
성	85(46.4)	98(53.6)	183(100.0)
연 령			
60세~64세	14(16.5)	61(62.2)	75(41.0)
65세~69세	56(65.9)	26(26.6)	82(44.8)
70세~74세	11(12.9)	11(12.2)	22(12.0)
75세~79세	4( 4.7)	-	4( 2.2)
배우자 유무			
있 음	66(77.6)	73(74.5)	139(76.0)
없 음	19(22.4)	25(25.5)	44(24.0)
총 가계 소득			
50만원 이하	31(36.4)	2( 2.0)	33(18.0)
51~100만원	27(31.8)	18(18.4)	45(24.6)
101~150만원	4( 4.7)	24(24.5)	28(15.3)
151~200만원	12(14.9)	11(11.2)	23(12.6)
201~250만원	5( 5.9)	14(14.3)	19(10.4)
251~300만원	1( 1.2)	14(14.3)	15( 8.2)
301만원 이상	5( 5.9)	13(13.3)	18( 9.8)
기 타	-	2( 2.0)	2( 1.1)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11(12.9)	-	11(6.0)
어려운 편이다	46(54.2)	37(37.8)	83(45.4)
좋은 편이다	28(32.9)	58(59.1)	86(47.0)
매우 좋은 편이다	-	3( 3.1)	3( 1.6)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2( 2.4)	2( 2.0)	4( 2.2)
나쁜 편이다	12(14.1)	15(15.3)	27(14.8)
좋은 편이다	62(72.9)	70(71.4)	132(72.1)
매우 좋은 편이다	9(10.6)	11(11.3)	20(10.9)
종교 유무			
있 음	60(70.6)	81(82.7)	141(77.0)
없 음	25(29.4)	17(17.3)	42(23.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11.7)	13(13.3)	23(12.6)
중학교 졸업	18(21.2)	25(25.5)	43(23.5)
고등학교 졸업	40(47.1)	37(37.8)	77(42.1)
대학교 졸업	13(15.3)	21(21.4)	34(18.6)
대학원 졸업 이상	4( 4.7)	2( 2.0)	6( 3.2)

관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조사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거부하여 중단되었거나 해당 대상에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조사 내용이 부실하여 탈락된 12명을 제외한 뒤 총 18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노인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연구 도구

### 1)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요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arasek(1979)의 '직무 내용 질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중 '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 적은 없다'는 역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는 .577이었다.

### 2)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Wall 등(1996)의 '직무 조절 척도(Measure of Job Control)'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은 것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681이었다.

### 3)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King과 동료들(1995)이 개발한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다. 세부적으로 정서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는 .810이었다.

### 4) 심리적 안녕감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Ryff, 1989)

18문항을 이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6점)'로 6점 척도이나 예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이 6점 척도로 세분화하여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는 .704였다.

### 5)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활동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은 월 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6)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 성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이 참여하는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활동시 금전적인 보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노인별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연구 대상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현황을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자발적이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94.0% (남:94.1%, 여:93.9%)가 '본인이 희망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남성 노인은 '용돈을 벌기 위해(28.2%)', '생계를 위해(23.5%)',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20.0%)', 여성 노인은 '생계를 위해(23.5%)',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19.4%)', '용돈을 벌기 위해(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와 '용돈을 벌기 위해'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근본

<표 2> 경제 활동의 현황

(N=183)

내 용	빈도(%)	
	남(n=85)	여(n=98)
<b>참여 동기</b>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5( 5.9)	19(19.4)
생계를 위해	20(23.5)	23(23.5)
시간을 보내기 위해	5( 5.9)	6( 6.1)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7( 8.2)	8( 8.2)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2( 2.4)	2( 2.0)
사람들과 교류를 증대시키려고	3( 3.5)	3( 3.1)
용돈을 벌기 위해	24(28.2)	17(17.3)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17(20.0)	16(16.3)
기 타	2( 2.4)	4( 4.1)
<b>직종</b>		
전문직	10(11.7)	9( 9.2)
기술공 및 전문직(전통문화지도사)	15(17.6)	18(18.3)
사무직	2( 2.4)	3( 3.1)
서비스직(택배/요식/미용/간병)	34(40.0)	32(32.7)
판매직(도매/소매)	9(10.6)	27(27.5)
단순노무직(가사보조/경비/청소)	15(17.7)	9( 9.2)
<b>정보 제공원</b>		
TV, 신문 등 대중 매체	11(12.9)	14(14.3)
취업 알선 센터	54(63.5)	11(11.2)
친구 등 지인의 소개	14(16.5)	63(64.3)
자녀의 소개	6( 7.1)	2( 2.0)
기 타	-	78( 8.2)
<b>활동 기간</b>		
1년 미만	38(44.7)	12(12.3)
1~2년 미만	26(30.6)	12(12.3)
2~4년	11(12.9)	18(18.3)
5~7년	2( 2.4)	12(12.3)
8~12년	3( 3.5)	12(12.3)
13~15년	-	5( 5.1)
16~20년	-	9( 9.1)
21년 이상	5( 5.9)	18(18.3)
<b>참여 횟수</b>		
매일	10(11.8)	70(71.4)
1주일에 2회	53(62.4)	27(27.6)
1주일에 1회	5( 5.8)	1( 1.0)
기 타	17(20.0)	-
<b>하루 활동 시간</b>		
1시간 미만	10(11.8)	4( 4.1)
1~2시간	11(12.9)	8( 8.2)
2~3시간	8( 9.4)	6( 6.1)
3~4시간	18(21.2)	16(16.3)
4~5시간	10(11.8)	14(14.3)
5시간 이상	28(32.9)	50(51.0)
<b>금전적 보상</b>		
20만원 이하	16(18.8)	10(10.2)
21~40만원	23(27.1)	5( 5.1)
41~50만원	17(20.0)	11(11.2)
51~75만원	8( 9.4)	10(10.2)
76~100만원	17(20.0)	24(24.5)
101~150만원	-	14(14.3)
151~250만원	-	20(20.4)
251만원 이상	4( 4.7)	4( 4.1)

적인 목적이므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라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기들은 노인들이 금전적인 이유 외에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일 자체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주 생계부양자로서 역할해 온 남성과 달리 이 연령대에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은 형편상 불가피하게 생활 전선에 참여하거나, 반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바램에서 참여하는 노인들도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남녀 모두 '서비스직(남: 40.0%, 여:32.7%)'이 가장 많았다. 남성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직(17.7%)'과 '기술공 및 준전문직(17.6%)'이 그 다음이었다. 여성 노인은 '판매직(27.5%)'이 뒤를 이었으며, '기술공 및 준전문직'은 18.3%를 차지하였다. '전통문화지도사'는 '기술공 및 준전문직'에 분류되었는데 이들의 업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거나 전래 동화를 구연하는 것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경로는 남성 노인은 노인복지관내 '취업 알선 센터(63.5%)'가, 여성 노인은 '친구 등 지인의 소개(64.3%)'가 가장 많았다. 활동을 한 기간은 남성 노인은 '1년 미만'과 '1~2년'이 각각 44.7%, 30.6%를 차지하였는데 2년 미만의 단기간이 75.3%였다. 단기간인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에 해당되는 '전통문화지도사'나 '실버 택배'가 소개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으로 남성 노인은 퇴직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 노인은 활동 기간이 끝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전통문화지도사'와 같이 재취업인 경우도 있지만 응답자가 중년기 이전부터 종사해 온 일을 노년기에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 횟수는 남성은 '1주일에 2회(62.4%)', 여성은 '매일(71.4%)'이 많았고, 하루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5시간 이상'이 남녀 각각 32.9%, 51.0%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업으로 전일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받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남성

노인은 '21~40만원'이 27.1%, 여성 노인은 '76~100만원'이 24.5%였다. 남성 노인은 '실버 택배'나 '전통문화지도사'인 경우 시간제로 근무하여 보수가 많지 않았고, 여성 노인은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남녀 각각 75.3%, 70.4%였다.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성의 85.9%와 여성의 84.7%가 '계속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 1. 성에 따른 경제 활동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차이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성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심리적 안녕감은 남성 노인은 50.9점이었으며, 여성 노인은 46.9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18~72점)를 고려해볼 때,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여 일하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t=6.84, p<.001$ ).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Pinquart와 Sorensen(2001)은 그 이유에 대해 노년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홀로 살아야 할 기간이 더 길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여성이 젊었을 때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여 물질적인 자원을 축적하기에 부족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인 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녀의 평균 수명을 볼 때 여성의 수명이 더 길며, 이 연령대의 여성은 성차별을 보다 많이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교육 혜택이나 사회 생활면에서도 열악한 입장이었으며 결혼 후에도 경제권을 갖고 행사한다기보다는 남편의 내조나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성별 분업에 익숙한 세대이다.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들뜸 노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였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기에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대상의 여성 노인들 중 전문직과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계층에 상관없이 여성 노인의 삶의 질이 남성 노인보다 낮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활동 관련 변인들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활동 관련 변인들과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성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차이

(N=183)

변 인	남(n=85) M(SD)	여(n=98) M(SD)	전체(N=183) M(SD)	t
심리적 안녕감	50.92(5.01)	46.87(2.85)	48.75(4.47)	6.84***

\*\*\* $p<.001$



<표 4> 활동 관련 변인들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N=183)

변 인	남(n=85)	여(n=98)
	$\gamma$	$\gamma$
활동의 요구 정도	-.233*	-.320**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448**	.211*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224*	.299**
정서적 지지 정도	.331*	.277*
도구적 지지 정도	.334*	.234**

\* $p < .05$ , \*\* $p < .01$

<표 5> 남성 노인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N=85)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beta$	$\beta$
교육 수준	.249*	.044	.048
요구 정도		-.159	-.162
조절 정도		.392***	.391**
가족의 지지 정도		.224*	.227*
금전적 보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			-.008 .062
$\Delta R^2$	6.2	21.1	0.4
$R^2$		27.3	27.7
F	5.504*	7.526***	4.987**

\* $p < .05$ , \*\* $p < .01$ , \*\*\* $p < .001$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는 남녀 집단별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활동의 요구 정도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는 남성 노인( $r = -.233, p < .05$ )과 여성 노인( $r = -.320, p < .01$ ) 모두에게서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을수록,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낮았다.

반면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와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 노인의 경우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와 가족에 대한 지지 정도는 각각  $r = .448(p < .01)$ ,  $r = .224(p < .05)$ 였으며, 여성 노인은  $r = .211(p < .05)$ ,  $r = .299(p < .01)$ 였다. 다시 말하면, 활동에 대해 조절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3. 경제 활동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

세 번째 연구 문제인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

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녀 노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체 연구 대상 노인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출된 변인들 위주로 투입하였다.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가장 높은 상관 계수는 남성 노인 집단은  $r = .443(p < .001)$ 이었으며, 여성 노인 집단은  $r = .389(p < .001)$ 로, 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부록 1>). Eigen 값과 Durbin-Watson 계수는 남성 노인 집단의 경우 각각 6.232, 1.881, 여성 노인 집단은 6.569, 2.014였다. Eigen 값이 15 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근접하여 회귀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 1)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먼저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교육 수준을, 다음 2단계에서는 활동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와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외적, 내적 보상인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 분석 결과, 일하는 남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1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6.2%였다( $p < .05$ ). 2단계에서 임금 노동의 특징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21.1%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전체적으로는 27.3%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임금 노동의 외적, 내적 보상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0.4%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1$ ),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27.7%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beta = .391, p < .01$ )와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beta = .227, p < .05$ )는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가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요구 정도보다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친 Schaubroeck와 Fink (199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Theorell 등(1998)의 연구에서 활동의 조절 정도가 감소된 기간에 심근 경색의 위험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Marmot et al., 1997)에서도 지위가 낮을수록, 평균 혈압, 고혈압, 뇌졸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e (1959)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절하려는 내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다는 것은 방법이나 결정에 재량권이 많아 본인이 활동 수행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율성이나 통제력을 소유한 것으로 지각되어 정신 건강에 득이 될 수 있다.

Bandura(1977)는 저숙련의 기계적인 작업은 본질적으로는 조절도가 부재한 것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은 숙달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가진 조절력이 높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ones & Fletcher, 2003, 제인용).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활동 중 택배나 아파트 경비 업무와 같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를 끝냈을 때에는 본인이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성취감을 느껴 결과적으로 안녕감이 고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Baltes와 Baltes(1990)가 노년기에 적합한 적응 전략으로 제안한 '선택·최적화·보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으로 축소하여 선택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의 발달적 상실분을 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안녕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역시 남성 노인의

안녕감 증진에 기여했다. Vallerand(1997)는 개인이 상사나 동료, 가족에게 존중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신감이 증가되고, 소속감을 느껴서 내적 동기 수준이 상승된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활동시 개인이 받는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은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은 고긴장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거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게끔 작용할 수 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 후 노년기에 축소되기 쉬워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지 제공자로서 가족의 역할이 클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 활동 참여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남성 노인 대다수가 활동 참여에 대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가족의 지지가 많다는 것은 남성 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활동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가족이 남성 노인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서적으로나 도구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남성 노인은 자신을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2)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투입한 변인의 순서는 남성 노인 집단과 같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는 여성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1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12.7%였다( $p < .001$ ). 제 2단계에서 경제 활동의 특징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9.0%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전체적으로는 21.7%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활동의 외적, 내적 보상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15.3%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p < .001$ ),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37.0%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 수준( $\beta = .343, p < .001$ )과 활동의 요구 정도( $\beta = -.211, p < .05$ )는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다.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beta = .396, p < .001$ )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의 요구 정도가 낮을수록, 활동시 금전적인 보상이 적을수록,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교육 수준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자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김재돈·남철현, 1997; 박기남, 2004). 특히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에게는 교육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변인이 아니었으나, 여성 노인에게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

<표 6> 여성 노인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N=98)

변 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3단계 $\beta$
교육 수준	.356***	.287**	.343***
요구 정도		-.246*	-.211*
조절 정도		.025	.062
가족의 지지 정도		-.103	.040
금전적 보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			-.396***
			.097
$\Delta R^2$	12.7	9.0	15.3
$R^2$		21.7	37.0
F	13.969***	6.443***	8.910***

\*p<.05, \*\*p<.01, \*\*\*p<.001

의 여성 노인이 많은 현실을 볼 때 일부의 고학력 여성은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양질의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일의 요구 정도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활동의 요구 정도만이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난 Barnett과 Brennan(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개인이 활동시 시간이 촉박하거나, 활동량이 과하거나, 역할이 불분명 하는 등 활동이 요구하는 정도가 높을 때 신진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이런 경우 노인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성 노인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 종사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인간 관계를 접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충되는 요구를 경험하거나 개인의 감정 표현 자제와 감정 부조화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 결과적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Hochschild(1983)는 이들은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표면 행위(surface acting)'나 표현하도록 요구받은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심 행위(deep acting)'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감정 표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대인 관련 업무들을 통해 여성 노인은 감정 노동(emotional labor) 수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성의 정체성은 관계적 사건과 연관이 많으나 남성은 직업 성취와 더 관련이 있다는 French 등(1995)의 연구에서처럼 남녀가 동일하게 대인과 관계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성은 이 과정에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요구도가 여성 노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금전적 보상이 적을

수록,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많을수록 참여자에게 긍정적이지만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참여 동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기 중 '지식과 경험의 활용'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이 일하는 이유가 생계형 취업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자기 존재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로 연구 대상 중 전통문화지도에 종사하는 여성 노인은 시간제여서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전의 교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직에 근접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노인의 취업 동기가 계층별로 매우 다양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제 활동을 하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차이와 노인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변인을 포함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성차 분석 결과 남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여성 노인보다 높아 선행 연구 결과들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 연령대의 노인 중 일하는 여성 노인은 전업 주부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므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더욱 낮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는 등 여성 노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의 요구 정도는 개인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는 안녕감에 긍정적인 것이

라는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가설에 대하여 남녀 노인 두 집단 모두에서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 지지 정도가 공통되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출된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지지되었다. 남성 노인의 경우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와 지지 정도가, 여성 노인은 활동의 요구 정도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노인에게는 조절도가 높은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의 지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여성 노인에게는 요구도가 낮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종을 개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여성 노인의 경우 활동 관련 세 변인 중에서 활동의 조절 정도와 가족의 지지 정도가 안녕감의 설명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참여자의 인성적 성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외부 자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 지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예로 통제 의 소제(locus of control)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내적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이보다 자신이 환경을 더 많이 조절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의 여성 대상자들은 내적 통제 신념보다는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남성 노인들은 내적 통제 신념을 가져 조절이나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여성 노인보다 안녕감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변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모델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요구도나 조절도에 비해 지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 일반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 안녕감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남성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여성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고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개인이 원하는 지지와 제공된 지지와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생각해 볼 수 있다(Lefcourt et al., 1984). 환언하면 지지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지지와 제공되는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이 일치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활동의 요구 정도 문항 중에 '해야 할 일의 양이 많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 중 '가족은 내가 일하느라 바쁠 때 집안 일을 대신해 준다'는 응답은 2.42점으로 지지 측정 문항 중 두 번째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이었다. 고정화된 성별 분업에 익숙한 노인 세대의 경우 남성 노인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당연시되나 여성 노인은 외부 활동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여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해가 부족하여 다중 역할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여성 노인들이 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노인이 원하는 지지는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족의 지지가 미흡하였을 경우 노인은 가족의 지지에 불만족하고 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대상과 지지의 적합도가 맞지 않아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에 한정되었고 교육 수준이 전국 노인들에 비해 다소 높았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이들의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이 처한 객관적인 삶의 조건보다 자신의 성격적 특징에 따라 주관적인 지각의 정도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인을 함께 조사한다면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이것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활동의 요구 정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낮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직종별로 구분하여 표집, 산출한다면 신뢰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첫째, 그동안 남녀가 함께 종사해 왔으나 남성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경제 활동에 대해 도외시되었던 여성 노인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 노인도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무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요구-조절-지지 모델'에 기초하여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참여자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활동의 환경을 계획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7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04일

#### 【참 고 문 헌】

- 김재돈·남철현(1997).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 23(2), 173-191.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 24(3)**, 13-29.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양열(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호)**, 31-51.
- 신동면 · 양기근(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 고용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11-128.
- 윤희열(1996).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 김정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조운주(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경제 활동 인구 연보.
- 통계청(2006). 고령층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결과.
- UN(2007). 세계 인구 보고서.
- Baltes, P. B. &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1-30. Cambridge U. K.: Cambridge Press.
- Barnes-Farrell, J. L.(2005). Older Workers. In J. Barling (Ed.), *Handbook of work stress*, 431-454. Thousand Oaks: SAGE.
- Barnett, R. C. & Brennan, R. 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3)**, 259-276.
- Brief, A. P., Butcher, A. H., Geroge, J. M., & Link, K. 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65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hipperfield, J. G. & Havens, B.(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6(3)**, 176-186.
- Conner, K. A., Dorfman, L. T., & Thompkins, J. B. (1985).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professors: The contribution of work, health, and length of retirement. *Educational Gerontology*, **11**, 337-347.
- Dollard, M. F., Winefield, H. R., & de Jonge, J.(2000). Psychosocial job strain and productivity in human service workers: A test of the demand-control-support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 501-510.
- French, S. L., Gekoski, W. L., & Knox, V. J.(1995). Gender differences in relating life events and well-being in elderly individual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1-25.
- George, L. K. & Clipp, E. C.(1991). Subjective components of aging well. *Generations*, **15(1)**, 57-61.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eaney, C. A., Price, R. H., & Rafferty, J.(1995). Increasing coping resources at work: A field experiment to increase social support, improve work team functioning, and enhance employee mental healt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4)**, 335-352.
- Herzog, A. R. & House, J. S.(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15(1)**, 49-51.
- Hochschild, A. R.(1983). *The managed heart*.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hnson, J. V. & Hall, E. M.(1988). Job strain, work place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 of a random sample of the Swedish working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10)**, 1336-1342.
- Jones, F. & Fletcher, B.(2003). Job control,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 J. Schabracq(Ed.), *Handbook of work and health psychology* 121-142. N.Y.: John Wiley & Sons Inc.
- Karasek, R. A.(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Karasek, R. A., Triantis, K. P., Chaudhry, S. S.(1982). Coworker and supervisor support as moderators of associations between task characteristics and ment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3(2)**, 181-200.
-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 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235-258.
- Krause, N.(2003). Religious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8(3), 160-170.
- Lefcourt, H. M., Martin, R. S., & Saleh, W. E.(1984).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Interactive moderators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78-389.
- Lerner, D. J., Levine, S., Malspeis, S., & D'Agostino, R. B.(1994). Job strai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0), 1580-1585.
- Marmot, M., Bosma, H., Hemingway, H., Brunner, E., & Stansfield, S.(1997). Contribution of job control and other risk factors to social variations in coronary heart disease incidence. *The Lancet*, 359(9073), 235-239.
- Maslow, A. H.(1966). *The psychology of science: A reconnaissance*. N.Y.: Harper and Row.
- Parnes, H. S. & Sommers, D. G.(1994). Shunning retirement: Work experience of man in their seventies and early eighties. *Journal of Gerontology*, 49(3), 117-124.
- Pinquart, M. & Sorensen, S.(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1(4), 242-250.
-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 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September), 265-277.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aubroeck, J. & Fink, L. S.(1998). Facilitating and inhibiting effects of job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outcomes and role behavior: A contingency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2), 167-195.
- Solomon, Z., Mikulincer, M., & Avitzur, E.(1988). Coping,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79-285.
- Theorell, T., Tsutsumi, A., Hallquist, J., Reuterwall, C.(1998). Decision latitude, job strain, and myocardial infarction: A study of working men in Stockhol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382-388.
- Vallerand, A. H.(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N.Y.: Academic Press.
- Wall, T. D., Jackson, P. R., Mullarkey, S., & Parker, S. K.(1996). The demand-control model of job strain: A more specific tes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9, 153-166.
- White, R. W.(1959). Motivation 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부록 1〉 남녀 노인 집단의 독립 변인들간 상호 상관 계수

변 인	(1)	(2)	(3)	(4)	(5)	(6)
(1) 교육 수준	1.000	-.187*	.443***	.011	.235*	-.040
(2) 활동의 요구 정도	-.109	1.000	-.202*	.059	-.059	.042
(3)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250**	-.302**	1.000	.022	.083	-.014
(4)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355***	-.342***	.389***	1.000	.157	-.026
(5)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143	.030	.110	-.069	1.000	.070
(6) 활동에 대한 만족도	.182*	-.283*	.286*	.137*	.082*	1.000

\*p&lt;.05, \*\*p&lt;.01, \*\*\*p&lt;.001

※ 대각선을 중심으로 우측 상단은 남성 노인 집단이며, 좌측 하단은 여성 노인 집단임.

